

#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평균 27만7천원

### 전주비 1.1%↓...채소류 수요 집중 기간 피해야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으로 평균 27만7500원이 들 것으로 조사됐다. 전 주보다 1.1% 하락한 액수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추석 차례상 차림비용은 평균 27만 7500원이었다.

이는 전국 19개 시·도 전통시장 18곳과 대형마트 27곳의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로, 전주(5일)의 28만5000원보다 1.0% 떨어졌다.

전통시장이 0.4% 내린 23만 1000원, 대형마트가 1.6% 떨어진 3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9만3000원 더 싼 셈이다.

김권형 aT 수급관리처장은 "이달 들어 채소류 작황이 다소 호전돼 출하량이 증가한 영향"이라며 "특히 배추와 무는 정부의 비축물량 공급 확대와 합인 판매로 가격이 전주보다 저렴해졌다"고 설명했다.

aT는 배추·무 등 채소류를 수

요가 집중되는 추석 1~2일 전을 피해 구입할 것을 권장했다.

사과·배는 품종의 집중 출하로 공급이 원활해지는 추석 6~8일 전에, 수산물은 제수용 수요가 집중되기 전인 추석 5~7일 전에, 축산물은 선물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 11~14일 전을 피해 4~6일 전 구입하면 더 저렴하다고 전했다.

aT는 오는 20일 추석 성수품 구입비용과 선물세트 가격 등의 분석 정보를 한 차례 더 발표할 예정이다.

서은홍 기자



**파리바게뜨, 추석 선물 세트 판매** 13일 서울 종로구 파리바게뜨 카페 대학로점에서 모델들이 실속형 추석 선물세트와 M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관련 제품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추석 세트는 최근 파리바게뜨에서 선보인 배달 서비스 '파바 딜리버리'를 통해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추석 명절,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 지원기관들과 장보기 캠페인

추석 명절을 맞아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와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협·단체가 연일 현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청(청장 김진형)은 11일 중소기업 협·단체장과 함께하는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에 이어 13일에는 광주 북구에 소재한 말바우 시장에서 지역 17개 지원기관과 함께 대규모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통시장 이용 촉진을 위해 시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제작한 장바구니를 나눠주고 사전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였다.

윤용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

역본부장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시 특별할인과 소득공제 혜택도 있는만큼,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종록 말바우시장 상인회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해주시는 기관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통시장의 장점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전통시장 이용은 서민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므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었으면 한다.”면서 “전통시장 편의시설 확충과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개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 LH 광주전남 공공주택 건설용 비축토지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2018년 비축토지 매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등기된 광주·전남 소재 공공주택 건설 등이 가능한 토지, 광주 하남, 순천, 여수오전 일반신단 내 기업경쟁력이 저하된 토지 등이다.

지상물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철거해야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이 제한된 토지(농지·임야·녹지·초지·공원·도로 등)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LH는 유형별 매각신청 토지를 대상으로 우선순위 평가 후 사업계획, 사업예산 등을 고려해 매입대상 토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LH와 매각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감정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비축토지 매입 접수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LH 광주전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에 접수하면 된다.

LH는 매각신청서 접수 후 11월 말까지 매입심사를 완료하고 12월 이후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축토지 매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올 카드대출, 4조원 ‘급증’...대출규제 강화 ‘풍선효과’

올들어 카드로 현금서비스나 대출받은 규모가 지난해보다 약 4조원 늘었다.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이용액은 52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48조7000억원)대비 8.6% 늘어난 수준이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이용액은 각각 30조2000억원, 22조7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동기대비 각각 3.4%, 16.4% 증가했다.

지난 6월 기준 카드사 총체권 연체율은 1.47%로 전년 동월말(1.46%)대비 0.0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카드대출 연체율은 2.33%로 전년 동월말(2.34%)대비 소폭 하락했다.

카드 이용도 늘었다.

올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405조5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0%(15조7000억원) 증가했다. 기업구매전용카드 이용액과 국제카드납부액을 제외한 이용액은 379조 9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5% 커졌다.

카드별 이용액은 신용카드 323조 3000억원, 체크카드 8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각각 3.9%, 4.7% 늘어난 수준이다.

카드 발급매수도 늘었다. 지난 6월말 대비 신용카드는 1억226만매, 체크카드는 1억1148만매 발급됐다. 전년 동월대비 신용카드는 4.9%, 체크카드는 1.2% 발급매수가 늘었다.

발급된만큼 휴면된 카드도 증가했다.

휴면카드 매수는 822만매로 전년 동월말 대비 0.1%상승했다. 다만 전체 신용카드 발급매수 대비 휴면카드 매수 비중은 8.0%로 전년 동월말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금감원은 “카드대출 취급 동향과 연체를 추이 등을 상시 점검하고

상반기 카드대출 52조9000억원

연체율, 전년 동기비 소폭 하락

외형경쟁 심화 마케팅비용 급증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 우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내달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대출과 이용액 증가세에 카드사 실적은 개선됐다.

올해 상반기 중 8개 전업카드사 순이익은 8101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0.9%(2731억원) 늘었다. 카드사별로는 BC카드를 제외한 모든 회사 순이익이 증가했다.

영업부문별로 살펴보면 카드이용액 증가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대비 1953억원 늘었다. 할부수수료 수익으로 이전보다 672억 원 더 벌어들였다. 카드론 취급확

대로 카드론 수익도 1749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카드사간 경쟁심화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카드업계는 올해 상반기 마케팅 비용에 전년보다 3235억원을 더 썼다. 특히 부가서비스와 무관하면서 외형경쟁을 심화하는 기타마케팅 비용이 큰폭 증가했다. 이 비용은 지난 2014년 6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1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카드업계 조달비용도 918억원 늘었다. 또한 대손비용도 전년 동기 대비 1785억원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까지 순이익은 감소세를 보였지만 마케팅비용은 매년 증가했다”면서 “제살깎기형 외형 경쟁으로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며 과도한 마케팅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카드사 조정자기자본 비율은 23.2%로 전년 동월말 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레버리지비율도 4.8배로 감독규정상 지도기준 6배 이내이지만 전년 동월말(4.3배)대비 0.5배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정책금리 추가 인상 움직임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요구 지속, 제로페이 도입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했다”면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해 카드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